

감사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시편 103:1-5 절

감사하는 삶이 영적 습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부르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 막내로서 존재감 없이 자랐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힘겨운 삶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해야 했을 뿐 아니라 늘 전쟁을 치루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 놓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언제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 다윗.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 할 수 있을까요?

첫번째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감사는 감사의 내용보다 감사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1 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의 찬양 대상, 찬양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송축하다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평안과 기쁨 자체입니다. 사울에 쫓겨 다닐 때, 전쟁 중에 늘 위협 속에 있을 때, 다윗이 부르는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시편 18:2 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시편 23:1 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지키는 분이 여호와라면, 내 인생을 인도하는 목자가 여호와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번째,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내 전부를 드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1 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영혼이란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하며 육체와 분리된 영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 아닌 인간의 전부, 감정, 의지, 생각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쏟아야 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다윗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택이란? 히브리어로 ‘그물, 보상,

혜택’ 등의 의미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하심과 인자한 행위를 말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을 간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어 주신 것이며 그 예수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면 어떤 상황에도 감격의 찬양이 가능합니다.

셋번째,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감사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모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 이것 만으로도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말씀합니다. 10 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죄에 대해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지만 여전히 그 죄책감은 우리를 따라다니며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12 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8 절에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 37 편 4 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원까지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다윗이 감사가 습관이 된 것 처럼 감사가 내 삶의 거룩한 노래가 되는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